

원희룡 장관,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 면담

- 4.7일,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사업 등 교통 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-

- 「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(’22.8)」의 후속조치로 인프라 수주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7일(금) 라켈 페냐(Raquel Pena)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.
- 원 장관은 라켈 페냐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페데르날레스 신공항, 암바르 고속도로, 만싸니오항, 도심교통수단(철도, 모노레일 등) 등 양 국가 간 교통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페데르날레스 신공항 사업에 한국공항공사, 포스코 건설 등 우리 기업이 선정·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”라며, “금년 중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- 이에, 라켈 페냐(Raquel Pena)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은 “페데르날레스 신공항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”라며, “고속도로, 항만, 메트로, 통합교통정보 프로젝트 등에 한국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겠다”고 화답하였다.
- 또한, 원희룡 장관은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에게 “빠른 시일 내에 도미니카공화국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”고 하고,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·강화할 것임을 밝혔다.

2023. 4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